

사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혁명업적은 우리 당과 조국력사에 영원불멸할것이다

전당, 전군, 전민이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는 시기에 우리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을 맞이하고있다.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2월 16일은 후손만대에 길이 전해갈 민족최대의 혁명적 경사의 날이다. 이날이 있어 백두의 혈통, 주체혁명의 명맥이 끊기지 않았고 우리 당과 조국, 우리 인민의 자주적존엄과 지위가 최상의 경지에 올라서게 되었으며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승리의 력사가 출기차게 흐르게 되었다. 세계가 한결같이 우러르는 절충한 정치원로, 절세의 애국자를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고 혁명하여온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더없는 긍지이며 행운이다.

올해는 우리 당과 조국력사에 특기할 혁명적명절들이 겹친 뜻깊은 해이다.

지금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상을 숭엄히 우러르며 반세기가 넘는 장구한 기간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조국과 민족의 강성번영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깎그리 다 바치신 김정일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백두산의 아들로 탄생하시어 우리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실로 영구불멸할 업적을 쌓아 올리시였습니다.》

조국해방 일흔들과 당창건 일흔들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지금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으로 가슴뛰고있다. 세상에는 수많은 나라와 당들이 있지만 우리 당과 조국처럼 장장 수십성상 그랄듯 빛나는 승리와 번영의 력사를 수놓아온 당과 국가가 없다. 수명의 위업에 무한히 충실한 혁명적당, 가장 올바른 지도리념과 튼튼한 대중적지반에 의거하여 언제나 백전백승만을 펼쳐가는 강위력한 항도적력량, 그 어떤 대적도 감히 범접 못하는 작고도 큰 나라, 이것이 세계의 한결같은 격찬의 목소리이다.

온 누리에 찬연히 빛을 뿌리는 우리 당과 조국의 높은 존엄과 불패의 위력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의 고귀한 결정체이다.

일찌기 10대에 봉남산마루에서 조선을 세계에 빛내일 굳은 맹세를 다지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바쳐오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가 시작된 때로부터 당사업은 물론 정치, 군사, 경제, 문화의 여러 부문 사업에서 새로운 전변이 일어나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커다란 혁신과 양성이 이룩되게 되었다. 어머니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시고 우리 당의 영원한 지도사상으로 빛내어 주신분이 위대한 장군님이시며 로속하고 세련된 령도가 천지개벽의 새 력사를 펼쳐시며 로동당시대의 일대 전성기를 안아 오신분이 우리 장군님이시다. 겹쌓인 정신육체적파로를 초인간적인 의지로 이겨내시며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강성국가건설을 위하여 현지지도강행군길을 이어가신 어머니장군님의 애국헌신의 로고를 우리는 영원히 잊을수 없다.

2012년 4월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신것은 장군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당건설업적과 부강조국건설업적을 천세만세 빛내어나가려는 천만군민의 절대적인 총성과 드림없는 의지의 발현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와 같이 당대에 한 나라, 한 민족의 존엄과 위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운 절충한 령도자를 력사는 잊지 못하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의 존엄과 불패의 업적으로 하여 우리 당이 강하고 우리 조국의 미래가 그토록 창창한것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혁명생애는 우리 당과 조국을 자주시대를 주도해나가는 불패의 보루로 위용 떨치게 하신 성스러운 로정으로 수놓아져있다. 자주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 간직하고 구현해오신 혁명신조고 혁명실현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건설도, 군건설과 경제건설도 철두철미 자주의 원칙에서 밀고나가시였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나라의 실정과 우리 혁명의 리익에 맞게 풀어나가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끄시였기에 우리 당이 높이 추켜든 혁명의 불은기는 언제나 진보적인류의 희망의 등대라 되었으며 자기가 선택한 길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조국의 주체의 항로는 추오의 흔들림도 없었다.

특히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난 세기 90년대에 선군정치로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확립하신것은 자주의 기치높이 전진하는 우리 당과 조국의 강화발전력사에 특



기할 사변이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 선군혁명령도로 하여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심장마다에 백질불굴의 혁명신념이 더욱 억척같이 뿌리내리게 되었으며 주체형의 혁명적당, 주체조선의 존엄과 위용이 만방에 힘있게 펼쳐지게 되었다. 한세기전까지만 하여도 사대와 망국으로 수난을 겪어야 했던 우리 나라가 시대와 력사발전을 주도해나가는 불패의 사회주의보루로 빛을 뿌리게 된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자주정치의 고귀한 결실이다.

오늘 세계의 여러 나라와 당들이 제국주의자들의 강권과 전횡에 눌리워 자기 할 소리로 못하고 비극적운명까지 강요당하고있는 현실은 어머니장군님의 주체적인 당건설업적과 부강조국건설업적의 위대성을 더욱더 부각시키고있다. 우리 당과 조국은 앞으로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강철의 신념과 배짱으로 헤쳐오신 자주의 길을 따라 깎듯이 나아갈것이며 그 길에서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을 펼쳐갈것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혁명생애는 우리 당을 강위력한 혁명의 정치적참모부로, 우리 조국을 기적의 나라로 빛내이신 불멸의 력사로 아로새겨져있다.

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는것은 혁명승리의 결정적요인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첫시기부터 우리 당을 수명의 당으로, 혁명의 정치적참모부로 강화발전시키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어 오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의 손길은 전당김일성주의의 기치밑에 유일사상체계확립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갔으며 하신데도 어려웠고 주체혁명의 세시대,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당사업에서 근본적인 혁신을 일으켜나갔도록 하신데도 새겨져있다. 전당이 하나의 사상으로 통일되고 하나의 의지로 굳게 결속된 사상적순결체, 조직적전일체, 행동의 통일체, 이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밑에 강화발전된 조선로동당의 참모습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당건설업적이 있어 우리 당이 높은 령도적전위를 지니고 오늘과 같이 준엄한 정세속에서도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확신성있게 이끌어나가고 있는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끄시는 시대에 우리 조국의 면모가 일신되고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위력이 최상의 높이에서 펼쳐졌다.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밑에 대규모로 진행된것은 기적중의 기적으로 빛나고있다. 당히 나시게 된것은 기적중의 기적으로 빛나고있다. 강력한 정치군사적, 물질기술적 잠재력을 총괄시킴과 최후승리의 명마루로 돌진하는 새로운 주체 100년대 우리 조국의 거대한 활력은 위대한 장군님의 천만고생과 맞아온것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혁명생애는 우리 당과 조국을 진정히 어머니당, 어머니조국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인민중시, 인민사랑의 서사시로 빛나고있다. 어머니당, 어머니조국, 이것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고귀한 혁명유산인 우리 당과 조국에 대한 천만군민의 다함없는 청송이다. 여기에는 운명도 미래도 다 맡아 보살피고 꽃피워주는 우리 당과 조국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이 비껴있으며 준엄한 날에나 행복할 날에나 변함없이 받들고 따르려는 순결한 마음이 깃들어 있다.

하시면서도 철거세대주민들의 생활상불편을 먼저 생각하시며 일군들이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기초를 이루는 인민에 대한 온은 판점과 립장을 가지도록 일깨워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사랑의 세계는 오늘도 천만군민의 심장을 뜨겁게 울려주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에 의하여 자기의 성스러운 기록에 인민의 운명을 간직할 조선로동당의 인민적성격은 더욱더 확고부동한것으로 되었으며 우리 공화국은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영원한 삶의 보금자리로 깊이 간직되게 되었다. 우리 당과 조국을 전체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어머니당, 어머니조국으로 건설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을 우리는 천년이고 만년이고 길이 전해갈것이다.

참으로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반세기가 넘는 오랜 기간 천재적인 사상리론적지지와 비범한 령도력으로 당건설과 국가건설의 시대적모범을 창조하시며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과 우리 인민의 무궁한 번영을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하신 불세출의 위인이시였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모시고 혁명해온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당의 령도따라 장군님의 사상과 업적을 만대에 빛내이기 위한 혁명적군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기 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우리 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셔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절대적인 총정은 장군님의 전사, 제자들인 우리 군대와 인민의 마땅한 본분이며 혁명적도덕의리이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투철한 신념을 지니고 장군님의 사상과 업적을 대를 이어 옹호고수하며 끝없이 빛내어나가야 한다. 언제 어디서나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의 모습을 마음속깊이 간직하고 수명혁명위업실현을 위한 사업에 순결한 망심과 지성을 바쳐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우리 당과 국가의 최고령도자이시며 우리 인민의 운명을 시고 미래이시다.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하시며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을 승리에로 이끌고계신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에 의하여 우리 당과 혁명대오가 더욱더 순결해지고 경제강국건설과 문명국건설, 인민생활향상의 밝은 전망이 펼쳐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따르는 길에 우리 당과 조국의 높은 존엄과 영예, 강성번영이 있다는것을 우리 군대와 인민은 실생활체험을 통하여 심장깊이 절감하고있다.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열화같은 신뢰심을 지니고 원수님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한뜻으로 총직하게 받들어나가기 한다. 전당과 온 사회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유일적명도체계를 철저히 확립하며 누구나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원수님 따라 선군혁명천만리를 억세게 걸어갈 철석같은 의지를 지니야 한다.

당창건 일흔들이 되는 올해에 우리 당의 령도력과 전투력강화에서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하여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높이 모든 당건설과 당활동을 철저히 장군님식대로, 장군님의 사상과 의도대로 해나가야 한다. 어머니당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당사업전반을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일관시키며 인민정치를 철저히 구현하여 당과 대중의 혈연적관계를 더욱 강화해나가야 한다. 각종 당조직들에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5대교양을 끊임없이 심화시켜 그들모두를 당의 믿음직한 선군혁명투사들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 당의 로선과 정책관철을 당사업의 주선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당정책을 어느 하나도 놓침이 없이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이 전당과 온 사회에 짙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의 불길은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가르쳐주신대로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캄바람정신을 심장마다에 조아라고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투쟁에 애국의 한마음을 아낌없이 바쳐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구상과 념원을 실현하기 위한 오늘도의 총공격전에서 누구나 영웅적위훈의 창조자, 참된 애국자가 되어야 한다.

모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영광스러운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당,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을 온 누리에 빛내이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2월 16일 0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황병서동지, 현영철동지, 리영길동지, 김원홍동지, 서홍찬동지, 김춘삼동지, 박영식동지, 렬철성동지를 비롯한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 군중, 군단급 단위 지휘성원들이 함께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조국해방 일흔돐과 당창건 일흔돐을 혁명적대경사로 빛내기 위한 총동원전이 벌어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탄생하신 73돐을 뜻깊게 맞이하였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불세출의 선군령장이시며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차넘치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은 숭엄한 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립상이 모셔져있는 홀에 들어서시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립상앞에는 당기와 공화국기, 군기들이 세워져있었으며 조선인민군 륙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

군명예위병대가 정렬해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립상을 우러러 조선인민군 륙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명예위병대 대장이 영접보고를 드리였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립상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립상에 조선인민군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꽃바구니의 맹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밭이 찍여져있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에 들어서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면서 삼가 인사를 드리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훈장보존실, 울음홀, 사적승용차와 전동차, 배, 렬차보존실들을 돌아보시였다.

참가자들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빛나는 혁명생애를 뜨거운 마음으로 되새겨보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승리적으로 이끌어오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실 철석같은 의지를 지니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천재적인 예지와 탁월하고 세련된 선군혁명령도로 조국과 혁명, 시대와 력사앞에 영구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강철의 의지와 초인간적인 정력으로 선군장정의 험난한 길을 헤치시면서 인민군대를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직한 사상과 신념의 최강군, 일당백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으며 전대미문의 사회주의수호전에서 련전련승을 이룩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믿음과 사랑으로 이 땅, 이 하늘을 팍 채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어 우리 조국의 시공간은 장군님세월로 영원하고 장군님세월로 무궁번영하며 사회주의조선의 승리와 기적의 력사는 끝없이 이어지고있다.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군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가는 길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키워주신 선군혁명의 제일기수, 돌격대의 영예를 더 높이 떨치며 김일성, 김정일군대, 김정은혁명강군의 불패의 위력으로 백두의 성스러운 대업을 반드시 성취하고야말 불타는 맹세를 다짐하였다.

본사정치정보단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

제0078호

주제104(2015)년 2월 14일 평양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의 군사칭호를 올려줄데 대하여

최세의 선군령장이시며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광명성절을 뜻깊게 맞이하는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고귀한 위업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되새겨보고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독창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아버지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시어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으로 빛을 뿌리게 하시였으며 특출한 조직적수완과 탁월하고 세련된 명도로 당과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철물같이 다지시고 우리 나라를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혁명위업의 승리에 대한 드높지 않는 신념과 강철의 의지를 지니시고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시였으며 우리 인민군대를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실한 필승불패의 백두산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민위천의 사상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열화같은 정과 헌신이 고매한 덕성으로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숭고한 역사를 아로새기시였으며 불면불휴의 로고와 애국헌신으로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여놓으시였다.

현시기 인민군지휘성원들앞에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높이 받들어 전군에 당의 유일적평군체제를 확고히 세우고 당이 제시한 군력강화의 전략적로선과 과업들을 철저히 관철하여 인민군대의 정치사상적우월성과 전투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무적의 총대로 우리 인민이 선택한 사상과 제도를 믿음직하게 수호해 나가야 할 책임적이고도 영예로운 임무가 나사고있다.

모든 인민군지휘성원들은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전군에 백두산훈연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인민군대의 싸움준비를 빈틈없이 완성하며 일단 명령만 내리면 미제와 그 추종세력의 무분별한 침략전쟁도발책동을

일격에 단호히 짓부셔버려야 한다.

나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후손,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전사, 제자들인 인민군지휘성원들이 당과 인민의 신임과 기대를 언제나 심장에 새기고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서 자기의 영예로운 책임과 본분을 다하리라는것을 굳게 믿으면서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광명성절을 맞으며 군사칭호를 다음과 같이 올려줄것을 명령한다.

- △ 육군상장 최경성
- △ 육군중장 강영태 최창식 강병후 신석만 서대하 박영욱
- △ 항공군소장 정세영 리일찬
- △ 전략군소장 김정식
- △ 육군소장 박명수 고명수 김성국 최길룡 고수영 김영남 박현복 리정섭 강명식 김정덕 주상배 최철환 김철수 주형남 김경길 원명수 홍경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정 김은

민족의 최고령수이시며 자주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은 친해제일위업을 높이 모시어 태양조선의 찬란한 전성기가 펼쳐지고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기 위한 거룩적인 진군에 힘차게 떨쳐나서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민족최대의 명절 광명성절을 뜻깊게 맞이하고있습니다.

경사스러운 이날에 즈음하여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는 남녘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민족의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을 담아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영상이시며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숭고한 경의를 드리며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김일성군위, 김정일조선의 창창한 활로를 열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주제 31(1942)년 2월 16일, 백두산대장군의 령술아래 항일대진승리의 려명이 밝아오던 역사의 시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백두광명성으로 높이 솟아오르시던것은 절세영웅의 대를 이어 받들어모시어 태양조선, 태양민족의 광명한 미래를 더욱 활짝 열린 민족사적사건이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혁명생애는 백두의 넘과 기상으로 주체혁명위업의 찬란한 승리를 향해 폭풍쳐 내달려오신 결출한 혁명가, 절세의 애국자의 가장 영광스러운 한순간이었습니다. 백두산봉우리의 아들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필승의 신념과 강철의 의지로 역사의 준엄한 시련을 헤치시며 탁월한 명도실력으로 조선로동당을 가장 로속하고 세련된 혁명의 항도적력량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조선인민군을 천하무적의 백두산혁명강군으로 키우시였으며 천만군민을 백두의 혈통으로 현연체제를 이룬 통일단결의 대가정으로 꾸리시였습니다.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세계제국주의련합세력의 악랄한 고립압살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며 공화국이 반미대전의 승전고놀이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 민중중심의 주체의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고 강성국가건설의 전면적과거기를 열어놓을수 있는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탁월한 선군혁명명도와 숭고한 이민위천사상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입니다.

아버지장군님께서 조선로동당의 전철적주요를 안아오실 용단을 내리시고 대결과 불신으로 얼어붙었던 남북합선리강토에 격동과 환희의 6.15대회를 펼쳐주시어 온 겨레에게 자주통일의 밝은 희망을 안겨주시였습니다.

세계정치의 대원로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북적다단한 국제정세의 흐름속에서 시대의 방향타를 역세게 틀어쥐시고 비범한 정치실력으로 제국주의의 세계지배전략과 야망에 결성적타격을 가하시고 진보적인류를 자주와 독립, 사회주의의 길로 힘있게 추동하시였습니다.

정명 위인이 지닐수 있는 품격과 자질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원범하게 체현하시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백승의 한길로 이끌어오시였으며 태양의 위업을 찬란한 이어나갈수 있는 만년토대를 다져주시어 아버지장군님의 불멸의 공적은 천후만대에 길이 빛날것입니다.

오늘 주체혁명위업은 사상도 명도도 덕망도 아버지장군님 꼭 그대로이신 또 현존의 백두산형의 위인을 모시어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공화국의 최고수위에 영연히 높이 모시고 모든것을 장군님식대로 해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혁명명도사는 수령의 전사, 제자들이 어떤 도덕의리심을 지니고 수령을 받들어모시며 수령의 구상과 유훈을 어떻게 현실로 꽃피워야 하는가를 가장 숭고한 경지에서 보여주시는 총정와 도덕의리의 자욱자욱으로 아로새겨지고있습니다.

최세의 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백두산악과 같은 억센 신념과 배짱, 단호하고 무자비한 타격력으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무분별한 군사적도발소동과 반공화국압살책동을 쳐갈기시며 민족의 평화와 안전을 굳건히 수호해주고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명도와 자애로운 민중사랑의 빛발속에 오늘 북에서는 조선속도창조의 기세드높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눈부신 성과들이 이룩되고있으며 황금산, 황금벌의 역사에 이어 황금해의 새 역사가 펼쳐져 어디 가나 민족의 기쁨과 광명의 노래소리, 아이들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더 높이 울려 퍼지고있습니다.

새해신년사에서 사회주의경제강국, 문명국건설의 웅대한 전망을 밝혀주시고 불철주야의 현지지도로 민중생활향상대진군에 더 큰 박차를 가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힘찬 발걸음과 라 민족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이 장쾌한 현실로 꽃피고있는 경이적인 화폭들은 우리 이남민중의 가슴을 신군조국에 대한 무한한 동경심으로 세차게 끓어넘치게 하고있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조국통일유훈실현을 필승의 사명으로 간주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일꾼이 되는 올레에 남부관계에서 대진전, 대변혁을 가져오실 확고한 의지를 지니시고 온 겨레를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 힘있게 불타일어나고계십니다.

지금 미국과 이남의 반공일세력들의 반공화국대결책동이 아무리 악랄하다고 해도 민족의 태양 김정은원수님의 강철의 조국통일지달에서는 한낱 물거품에 지나지 않으며 원수님을 통일명수로 받들고 따르는 이남 각계의 민심의 대하를 절대로 막을수 없습니다.

진정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민족의 최고령도자로 높이 모시어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은 오늘도 매일도 영연히 주체의 태양으로 영생하시며 아버지장군님께서 이끌어오신 주체혁명위업, 통일강국건설대업은 반드시 이룩되고야말것임을 우리는 페부로 절감하고있습니다.

하기에 뜻깊은 광명성절의 이 아침, 남녘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들은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을 우러르며 기어이 자주통일의 찬란적극면을 열어나갈 불같은 맹세를 굳게 다짐하고있습니다.

우리는 백두에서 창조된 수령결사옹위의 전통, 단결의 전통을 철저히 계승하여 반제민전을 경애하는 원수님과 사상과 뜻을 같이하는 일심일체의 전위대오로 억세게 다져나가며 이남민중의 가슴마다에 백두산절세위인들에 대한 열화와 같은 흠모심을 더욱 격양시켜나감으로써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승배열풍이 온 남녘천지에 휘몰아치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역사적인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자주통일의 대강을 삶과 투쟁의 좌표로 삼고 우리 민족기리기치 밑에 민족의 대연합, 대대결을 이룩하며 역사적인 7.4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의 리행을 위한 투쟁에 총대진해나 가겠습니다.

우리는 애국적민주력량의 총결기로 미국과 친미시대미국세력의 북침전쟁도발과 동족대결책동, 비열한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며 날로 악랄해지는 보수집권세력의 진보세력말살책동과 《종북》소동, 《유신》독재부활책동에 철주를 내리겠습니다.

통일된 조국을 겨레에게 안겨주시며 불철주야의 로고를 다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안면과 건강은 온 겨레의 가장 절절한 소원이며 우리모두의 가슴마다에 끓어넘치는 열망입니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는 남녘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들의 다함없는 경하의 마음을 담아 민족의 운명이시고 창창한 미래이시며 조국통일의 위대한 구성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부디 건강하시고 안병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주제104(2015)년 2월 16일 서 울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리는 편지

주체위업의 위대한 명도자이시며 총련과 제일동포들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은 조국인민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조국해방 일흔과 조진로동당창건 일흔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서고있는 벅찬 시기에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탄생 73돐을 뜻깊게 경축하고있습니다.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광명성절을 맞이한 총련인민들과 제일동포들의 가슴가슴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을 위한 길에 한생을 강리코 바치시어 조국청사에 영연히 빛날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하여 한없이 설레고있습니다.

제일본조선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는 뜻깊은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전체 총련인민들과 제일동포들의 끝없는 총정의 한마음을 담아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며 위대한 대원수님께서 개척하시고 이끌어주시 주체위업과 총련내국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인도하시어 조국번영을 위하여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최대의 영광을 드립니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은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태양이십니다.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정치경륜과 명도품도, 최고의 지성을 지니신 위인종의 위인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사회주의조국을 수호하고 빛내이시였으며 혁명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조국과 인민을 위한 애국헌신의 길을 이어가시어 부강조국건설의 만년초석을 마련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은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을 지니시고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전면적으로 계승하시어 주체혁명의 새시대를 펼치신 위대한 명도자, 위대한 정치가이십니다. 사회주의위업을 백승의 한길로 이끄시어 조국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놓으신 창조와 건설의 영예이신 위대한 장군님은 언제나 군인들과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주시수 있는 모든것을 다 안겨주시는 자애로운 아버지, 인민의 수령이십니다.

주체적인 해외교포운동사상을 제일조선인민운동에 빛나게 구현하시어 수많은 불후의 고전적로작과 강령적교시로 총련을 걸음 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였으며 조국이 고난의 행군을 하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위대한 수령님의 마음을 보내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총련의 민족교육을 위하여 막대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계속 보내주시고 우리 동포들이 자연재해를 입을 때마다 재생의 생명수인 사랑의 위문금과 위문품을 안겨주시였습니다.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사업방법을 근본적으로 혁신하여 총련조직을 고수보존하고 총련의 균중적지반을 더욱 확대강화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가르쳐주시는분도, 강성국가의 대문을 여는 조국과 더불어 총련도 제일조선인민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 희망의 2012년에 함께 가자고 손잡아 이끌어주시는분도 우리 아버지장군님이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무어든지 총련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은대원수님의 한없이 자애로운 품속에서 세계화교포운동의 본보기로 영예를 떨치며 올해 60번째의 년분을 새기 게 되였습니다.

총련인민들과 제일동포들은 뜻깊은 올해의 광명성절을 맞이하면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명도를 따라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총련명도업적을 고수하고 빛내일 총정의

결에 충만되어있습니다.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와 새해축전을 높이 받들고 올해를 기어이 영광스러운 김정은시대 총련의 새로운 전성기를 여는 분수령의 해로 되게 하겠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유일적명도체제를 철저히 세워 총련조직안에 오직 원수님의 사상만이 짙 들어차게 하며 원수님의 말씀을 무조건전수, 결사관철하는 기풍이 차나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충실성에 기초한 철물같은 단결을 대오의 생명으로, 승리의 원천으로 틀어쥐고 단결의 위력으로 투쟁하며 원수님을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총련조직과 동포사회를 위하여 그 어떤 시련도 과감히 뚫고 애족애국운동을 기세총천하게 벌려나가겠습니다.

우리는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산악같이 일떠선 조국인민들과 발걸음을 맞추어 《총련결성 60돐을 새로운 전성기이로 비약의 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혁신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해나가겠습니다.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조직내부를 튼튼하게 다지고 지부와 분회를 비롯한 기중조직을 강화하는데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며 각계층의 광범한 동포교중을 조직의 두리에 한사람이라도 더 굳게 묶어주겠습니다.

우리는 총련의 민주주의적민중교육을 애국운동의 중심에 놓고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내용과 방법을 부단히 개선하여 민족교육의 우월성을 더 높이 발달하겠습니다.

총련위업의 바탕, 애족애국의 계주봉을 이어받음 제일본조선청년동맹과 제일본조선유학생동맹, 제일본조선청년상공회를 비롯한 새 세대들이 전통이 굳건하고 계승이 위대한 총련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줄기차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동포상봉인민들의 사업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참신하고 활력있게 벌며 그들이 애족애국운동의 주체군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일애국주의의 요구에 맞게 조국의 경제강국건설과 문명국건설,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사업을 전기관적, 전동포적인 사업으로 힘있게 벌려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조국통일사업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켜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놓는데 특색있게 기여하며 대외사업을 보다 능동적으로 활발히 벌려 제일조선인민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개척하는데서 유리한 대외적환경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애국사업전반을 동포제일주의로 일관시켜 전체 총련인민들이 동포들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교락을 같이하면서 동포들과 혼연일체가 되고 동포들의 힘에 의거하여 애족애국운동을 벌려나가겠습니다.

총련결성 60돐이 되는 올해 《감사, 행복, 동포들과 후대들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의 구호를 높이 들고 조국이 해방되어 70년, 총련이 결성되어 60년의 장구한 세월 이역방의 모진 찬바람을 이겨내며 오로지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받들고 조국과 총련조직두리에 뭉쳐 애족애국의 한 길을 걸으며 제일동포들과 그 자녀들에게 행복과 유족한 앞날을 마련해주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나가나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는것은 사회주의 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위업, 총련내국위업을 최후승리로 명도하시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안면입니다.

총련인민들과 전체 제일동포들의 한결같은 총정과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을 담아 주체위업의 위대한 명도자이시며 제일조선인민운동의 운명이시고 승리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육체건강강시를 삼가 축원합니다.

제일본조선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주제104(2015)년 2월 16일 일본 도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주조 무관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리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시며 우리 당과 판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리였다. 대사관 무관이 15일 인민무력부장인 조선인민군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꽃바구니와 민군 료군대장 현영철동지에게 전달하였다. 김정은동지께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주조 무 축하편지를 메 주이 료 흥남사회주의공화국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을 도이힐란드단체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주의농촌체제의 기치를 혁신을 일으키자》를 도이 힐란드단체연단이 6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다.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 높이 들고 농업생산에서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중국 항일혁명투쟁연교자가족과 외국의 단체, 인사가 꽃바구니를 보내여 왔다

중국 항일혁명투쟁연교자가족과 외국의 단체, 인사가 꽃바구니를 보내여 왔다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중국 항일혁명투쟁연교자 주조중 의 딸 주위가족과 슬로베니아조 선친선협회, 진달래야동지금 회 장 진달래 씨바구니가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에

14일 꽃바구니들이 진정되 속에 영생하십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등의 글밭이 쓰여져있었다. 김정일장군님은 우리들의 마음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탄생 73돐경축

중 앙 보 고 대 회 진 행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령도자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을 힘차게 벌여나가는 격동적인 시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주체의 태양 이시며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수령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탄생 73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탄생하신 민족최대의 경사의 날인 광명성절을 맞이하는 천만 군민의 가슴 가슴은 김일성민족의 후손대대가 복락을 누리게 할 자주의 빛과 선군의 역설 보검을 안겨주시고 사회주의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시였으며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실현에 불멸의 업적을 쌓으신 절세의 애국자, 혁명의 대성인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과 경모의 정에 휩싸여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탄생 73돐경축 중앙보고대회가 15일 평양체육관에서 진행되었다. 대회장정면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휘날리는 붉은 기록에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항도자인 조선로동당 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라는 구호들이 대회장에 나붙어있었다.

주석단배경에는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상징하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 모험과 《광명성절경축》이라는 글씨가 걸려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경의를 드립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명도업적을 끝없이 빛내어나가자!》,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선군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라는 구호들이 대회장에 나붙어있었다.

대회에는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일꾼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근로자들, 혁명렬사유가족들, 평양시내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사회주의조국에 체류하고있는 해외동포들,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가 대회에 참가하였다.

대회에는 주요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

들, 무관들이 초대되었다.

최룡해동지, 황병서동지, 김기남동지, 최태복동지, 현영철동지, 리영길동지, 박도춘동지, 양형섭동지, 강석주동지, 리용무동지, 오국렬동지, 김원홍동지, 김양건동지, 김평해동지, 박범기동지, 오수용동지, 로두철동지, 조연준동지, 태종수동지와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도당 책임비서들, 무력기관, 내각,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꾼들, 영웅들, 집결자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과 당의 선군혁명위업수행에서 공로있는 일꾼들, 로력혁신자들이 주석단에 나왔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기남동지가 중앙보고대회 회의를 선언하였다.

《김정일장군의 노래》가 추악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최룡해 동지가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열화같은 충정의 마음을 담아 위대한 김정일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리었다.

그는 한평생 백두의 붉은기정신으로 온 몸과 심장을 불태우시며 주체혁명, 선군혁명의 영광스러운 백승의 역사를 창조하시며 민족민중의 번영을 위한 억년기틀을 마련하신 김정일대원수님은 백두산대국의 위대한 영상으로 천세만대 영생하시길이라고 언급하였다.

보고자는 전당, 전군, 전민이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신년사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

사위원회 공동주호를 높이 받들고 사상과 총대,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역에서 총공격전을 우렁차게 울려 조국해방 일흔돐과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을 혁명적대경사로 빛내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당의 전투적소마라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사상과 업적을 천추만대에 길이 빛내이며 어머니장군님의 넋원대로 우리 나라를 천하제일강국, 인민의 락원으로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나갈 혁명적열의에 넘쳐있었다.

대회는 《장군님은 태양으로 영생하신다》 노래추악으로 끝났다. 【조선중앙통신】

우리 당이 원산구두공장 종업원들에게 베풀어준 크나큰 은정

위대한 당의 은정속에 우리 나라 신발공업의 본보기, 표준으로 천지개벽을 이룩한 원산구두공장의 로동자들이 크나큰 영광을 맞이하였다.

근로자들의 로동조건과 생활환경을 잘 보장해주는것이 생산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하시며 원산구두공장을 로동자들의 궁전에서 완전히 일신시켜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15일 공장종업원들을 위해 성대한 연회를 마련하여주시는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 해 7월 공장을 찾으시어 원산구두공장을 세 세기의 요구에 맞고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본보기공장으로 잘 꾸려주실수령님들께는 위대한 영광을 빛내이며 로동자들이 위생문화적인 환경에서 일하며 생활하도록 할데 대하여 간곡히 가르쳐주시었다.

공장의 로동조건과 생활환경을 일신시키기 위한 혁명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일일이 풀어주시며 공장이 최첨단건에 현대화를 높이는 수준에서 실현할수 있도록

하여주시었다.

지난 1월 봄결에도 뒹고싶던 경애하는 원수님을 개진된 일터에 또다시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진까지 찍은 그날의 감격이 지금도 가슴에 차고넘치는데 하늘같은 은덕을 거듭 안겨주시는 사랑에 공장종업원들은 뜨거운 눈물로 두볼을 적시었다.

이날 연회에서는 안정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의 축하연설이 있었다.

그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각별한 사랑속에 광명성절을 맞이하는 로동자들의 궁전에서 완전히 일신된 원산구두공장을 찾아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문화후생시설들을 돌아보시면서 로동자들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해줄수 있게 훌륭히 꾸려진데 대해 뜻내 기뻐하시면서 종업원들을 위한 연회를 차려주시겠다는 은정깊은 약속을 하여주시였으며 그날에 하신 사랑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오늘 이렇듯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셨었다.

세상에는 극소수 부유한자들이 향락을 누리는 궁전은 있어도 원산구두공장과 같이 누구나

기쁨을 위해 그로록 마음쓰신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는 이곳 원산구두공장에 대해 두고두고 이 전해갈 불멸의 령도자욱을 새기시면서 공장로동계급이 인민생활향상에서 큰 몫을 맡아하도록 따듯이 손잡아 이끌어주시었다.

주체 98(2009)년 탄생일을 며칠 앞두고 공장을 찾으신 어머니장군님께서께서는 이제 우리 인민들에게 가깝고 질 좋은 구두를 만들어 신겨야 한다고 하시면서 인민들의 신발문제해결을 위해 크나큰 심혈을 기울여주시었다.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한 한 로동자들의 궁전으로 완전히 일신된 원산구두공장을 찾아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문화후생시설들을 돌아보시면서 로동자들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해줄수 있게 훌륭히 꾸려진데 대해 뜻내 기뻐하시면서 종업원들을 위한 연회를 차려주시겠다는 은정깊은 약속을 하여주시였으며 그날에 하신 사랑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오늘 이렇듯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셨었다.

세상에는 극소수 부유한자들이 향락을 누리는 궁전은 있어도 원산구두공장과 같이 누구나

부러워하는 로동자궁전은 우리 나라에밖에 없으며 로동자들을 위한 연회라는 말도 태양조선,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신 우리 나라에만 있다.

그는 전체 로동계급의 한결같은 충정의 마음을 담아 우리 인민을 세상에 제일 귀중한 존재로 내세워주시면서 주실수 있는 은정을 다 베풀어주시며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전사, 제자로서의 영예로운 본분을 다해나 가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뜨거운 감사를 드려드렸다.

지금 우리 당은 원산구두공장 로동계급이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기를 바라고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모든 종업원들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인민생활을 결정적으로 향상시키려는 당의 의도를 관철하는데 적극 이바지해갈 불라는 열의에 넘쳐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충정다해 높이 받들어모시며 결사옹위하는 향심의 인간, 결연한 혁명전사기 쉼대 대하여 언급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와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주호를 높이 받들고 조국해방 70돐과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혁명적대경사로 맞이하기 위한 총공격전에서 전국의 앞장에서 달려나가기 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랑이 늘 자기들의 몸에 닿아 있고 언제나 경애하는 원수님의 따뜻한 품에 안겨산다는 긍지와 자랑을 안고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생산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원산구두공장의 전체 종업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정을 심장에 새기고 구두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나감으로써 가까운 앞날에 나라의 경공업을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우고 인민생활을 결정적으로 향상시키려는 당의 의도를 관철하는데 적극 이바지해갈 불라는 열의에 넘쳐있었다.

세계자주화위업에 불멸의 업적을 쌓으신 절세의 위인 광명성절경축행사

여러 나라에서 진행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로망아에서 업적으로 문화, 남아프리카에서는 경축모임, 사진전시회, 영화감상회, 에피도르에서는 경축모임과 도서전시회가 8일과 9일에 진행되었다.

행사장에서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있었다.

행사장에서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와 김정일동지,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었다.

또한 백두산출원인들의 불후의 고전적작품, 사회주의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소개하는 사진, 도서들이 전시되어있었다.

영화감상회에서는 《육류아동병들》 등 우리 나라 영화들이 상영되었다.

행사장에서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로망아근로자협회 위원장 다니엘 메디우는 다음과 같이도

말하였다.

2월 16일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탄생하신 뜻깊은 날이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생전에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인류가 나아갈 길을 환히 밝히는 수많은 고전적작품들을 집필하신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다.

그이는 특히 독창적인 선군혁명명도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그 어떤 제국주의자들도 감히 어찌하지 못하는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한평생 인

민의 행복과 나라의 통일을 위해 모든것을 바치신 한없이 자애로운 인민의 령도자이시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로 오늘 조선은 우주강국, 핵보유국으로서의 자기의 존엄과 위용을 남김없이 과시하고있다.

김정일동지께서 쌓아올리신 혁명적은 길이 빛날것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 가우렝주 독터 유수프 데드지역 비서 디베로 모페 오케에는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선군의 위력으로 온갖 원수들의 침략행위로부러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국방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신데 대하여 절감하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로동당이 승리의 한길로만 걸어올수 있는 력사적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혁명적건설에서 수행이 차지하는 지위와 결정적역할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었다.

우리 당에 있어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받는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들의 천신의 뉴대를 강화하는것은 매우 중요하다.

조선인민이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행복한 생활을 마련하기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것을 축원한다.

조선인민들의 천선문화전대성 에피도르 과판다협회 위원장 훌리오 발레스데로스 에스벤은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창시하신

선군조선의 미래를 꽃피우는 숭고한 사랑

민족최대의 명절인 광명성절을 맞아 전국

의 소학교학생들과 유치원, 탁아소어린이들이 또다시 어머니당의 은정어린 선물을 받아안았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숭고한 후대 판을 받들어 백두산대국의 찬란한 미래를 꽃피워 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높아야 온 나라가 밝아진다고 하시며 우리 어린이

들을 위해 끝없는 사랑의 서사를 수놓아가고계신다.

온 나라 방방곡곡의 모든 아이들이 받아안은 선물에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한평생을 바쳐 사랑하신 우리 어린이들이 세상에 부럽없이 행복속에 무럭무럭 자라나도록 따듯이 품에 안아키워주시는 어머니당의 다정한 손길이 어려웠다.

한평생 멀고 험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나가시며 인민의 행복과

이 절세라 세심히 보살피주는 당의 은정속에 15일 바다길이 막힌 서해의 서도와 석도, 자매도, 수운도, 가도, 대화도, 람도, 애도, 탄도에서 비행기들이 날았다.

사랑의 비행기를 또다시 맞이한 절세아이들과 주민들은 크나큰 격정을 넘쳐있었다.

나라의 귀중한 보배들이 아이들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끼

없이 돌려주며 멀리 있는 자식일수록 더욱 마음쓰는 친어머니의 사랑으로 섬마음들의 몇 안 되는 아이들을 위해 어쩔줄 몰라하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덕을 언제나 잊지 않고 열심히 배우고 또 배워 강건조건을 떠메고나갈 믿음직한 역군으로 억세게 준비해갈 결의를 굳게 다들었다.

【조선중앙통신】

내 조국의 미래를 지켜주고 꽃피워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대를 이어 충정을 다해갈 일념으로 가슴 불태웠다.

은 나라의 어린이들과 학생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덕을 언제나 잊지 않고 열심히 배우고 또 배워 강건조건을 떠메고나갈 믿음직한 역군으로 억세게 준비해갈 결의를 굳게 다들었다.

【조선중앙통신】

주체사상을 발전봉부화하시였으며 주체사상의 가치를 높이 드시고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을 언제나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었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은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대조선압살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렸다.

김정일대원수님의 사상과 위업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어 조선인민은 강성국가건설과 나라의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언제나 승리만을 이룩해나갈것이다.

로망아, 남아프리카에서 진행된 행사들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올리는 축전이 채택되었다.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인디아, 말레이시아에서는 업적론대회와 도서, 사진전시회가, 기네에서는 강연회가, 브라질에서는 경축모임이 7일과 9일에 진행되었다.

행사장에서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있었다.

행사장에서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와 김정일동지,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었다.

또한 선군조선의 참모습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이 전시되어있었다.

인디아에서 진행된 행사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올리는 축전이 채택되었다.

【조선중앙통신】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수중체조무용모범출연

《그리움은 끝이 없네》 진행

광명성절경축 수중체조무용모범출연 《그리움은 끝이 없네》가 15일 창평현 수영관에서 진행되었다. 양형설동지와 김용진내각부총리, 판계부문 일군들, 평양시내 근로자들이 모범출연을 관람하였다. 사회주의조국에 체류하고있는 해외동포들,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구 대표가 모범출연을 보았다. 주조 외교 및 국제기구대표부부, 주관부부들, 외국 손님들이 여기에 초대되었다. 모범출연장소는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의 어머니이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다함없는 경로의 정으로 세차게 설레이었다. 집체수중체조무용 《그리움은 끝이 없네》로 시작된 모범출연에는 2인결합수중체조무용 《백두의 말발굽소리》, 1인수중체조무용 《봄을

먼저 알리는 꽃이 되리라》 등을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이 펼쳐졌다. 출연자들은 한평생 인민행렬차를 타고 조국과 인민앞에 영원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린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천만군민의 열화같은 품모의 정을 여러가지 대형변화와 아름다운 물동에 담아 펼쳐보였다. 백두의 붉은기를 높이 드시고 사회주의강성국가의 새봄을 안아오시러 우리 장군님 해쳐오신 선군장정의 만단사연을 가슴뜨겁게 되새기며 관람자들은 격정을 금치 못해하였다.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지자이며 향도자인 위대한 땅을 따라 선군조선의 백승의 진로를 영원히 계속해나갈 천만군민의 신념의 맹세가 어린 집체수중체조무용 《당기여 영원히 그대와 함께》, 《고백》, 《승리는 대를 이어》는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었다.

링기, 솟구치기, 3단조형을 비롯한 높은 수준의 기교동작들로 일관된 모범출연은 백두의 넋과 기상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펼쳐나선 우리 조국의 벽천 현실과 온 나라에 뚫어번지는 제육열풍속에 나날이 발전하는 우리 수중체조무용의 면모를 잘 보여주었다. 집체수중체조무용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로 끝난 모범출연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총공격전을 힘차게 벌립으로써 10월의 대승전장을 빛나게 장식할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였다. 조화화, 예술화를 훌륭히 실현한 특색있는 수중체조무용모범출연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빙상휘거축전 개막

광명성절경축 빙상휘거축전이 15일 개막되었다. 개막식이 진행되는 빙상관의 야외에는 축전선전화가 나붙어있었다. 개막식장에는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모시자!》 등의 글발들을 드러운 대형기구들이 떠있었다. 최태복동지, 로두철동지와 리일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빙상휘거협회 위원장인 기광호제정상, 김일국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서기장, 관계부문 일군들, 평양시내 근로자들이 개막식에 참가하였다. 사회주의조국에 체류하고있는 해외동포들과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구 대표, 주조 외교 및 국제기구대표, 무관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개최가 선언되자 《김정일장군의 노래》가 주악되었다. 김명훈체육상이 개막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백두산대국의 영상이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흘러넘치는 속에 진행되는 빙상휘거축전은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 주체체육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아버지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높이 칭송하고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를 보여주는 성대한 축전으로 된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축전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올해신년사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성서,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주호를 받들고 뜻깊은 올해를 빛내이기 위한 투쟁에 펼쳐나선 군대와 인민에게 커다란 고무를 주게 될것이라고 하면서 개막을 선언하였다. 모범출연 《선군조선의 위대한 태양》이 진행되었다. 《조선의 행운》, 《장군님 생각》,

《인민사랑의 노래》 등의 종목들이 펼쳐지자 관람자들은 송고한 조국애와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심장을 불태우시며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강철의 의지와 초인간적인 정력으로 헌신의 강행군길을 이어가신 아버지장군님에 대한 홀모의 정과 절절한 그리움으로 가슴적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명도밑에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역에서 승리의 포성을 높이 울려 조국해방과 당찬건일흔들을 혁명적대경사로 빛내일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를 세련된 형상으로 보여준 《인민의 환희》,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를 비롯한 종목들은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관람자들은 우아한 물동과 재치있는 기교동작들이 은반위에 펼쳐질 때마다 출연자들에게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보내었다.



주체의 선군래양의 력사는 영원불멸하리라

광명성절을 경축하여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축포 발사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광명성절을 경축하여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축포발사가 있었다. 15일 저녁 주체사상님이 솟아있는 대동강반을 중심으로 김일성광장과 민주대인덕, 옥류교 등 수도의 곳곳은 환희의 축포가 터져오를 순간을 기다리는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군 중 들 은 위 대 한 김정일대원수님과 함께라면 기쁨도 영광, 시련도 영광이라는 확고부동한 신념을 안고 해쳐온 선군혁명의 천만리길을 돌이켜보면서 대원수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으로 가슴 불태우고 있었다. 2월 16일 0시 《장군님은

태양으로 영생하신다》의 노래가 장중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경축의 축포들이 터져올라 수도의 하늘을 붉게 물들이었다. 우리 인민에게 수령부, 장군부의 행운을 대를 이어 안겨준 민족최대의 경사의 날, 혁명적명절을 세세년년 빛내가려는듯 축포성은 하늘땅을 진감하고 활화산처럼 터져오른 축포는 황홀하게 부서져내리며 아름다운 일 만경을 펼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김정일동지는 그 누구보다도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시였으며 조국의 부강변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한생을 깡그리 바치시어 조국청사에 영원히 빛날 불멸

의 업적을 이룩하신 절세의 애국자이십니다.》 주체의 선군래양으로 영생하시는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우리 인민과 진보적인류의 가장 숭고한 경의인가 형형색색의 축포들이 련이어 솟구쳐 올랐다. 황홀한 불의 세계가 펼쳐놓은 아름다운 화폭을 크나큰 격정속에 바라보며 군중들은 전인미답의 험난한 초행길을 헤치시며 이 땅에 백두산과 더불어 영원히 변영할 강국을 일떠세우시고 누리에 빛내여오신 절세위인의 불같은 한생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았다. 한평생 백두의 붉은기정신으로 온념과 심장을 불태우시며 주체혁명, 선군혁명의 영광스러

운 백승의 력사를 창조하시고 민족민단의 번영을 위한 억년기들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시며 불세출의 선군령장이신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시어 우리 조국은 백두에서 창조된 혁명사상과 자주정신으로 언제나 승리하는 나라, 백두산총대의 위력으로 끝없이 강대한 나라, 지력을 온 인민의 모든 리상을 꽃피우며 백두산악과 더불어 영원히 부강하는 천하제일강국으로 빛을 뿌리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헌신의 로고를 바치시어 뿌려놓으신 만복의 씨앗들이 알찬 열매로 주렁지는 최한한 현실이 조국방방방곡곡에 펼쳐지고있음을 보

여주듯 축포의 화광이 온 누리를 밝게 비치었다. 대를 이어 수령부, 장군부를 누리며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하나의 사상, 하나의 전통, 하나의 계도를 따라 빛나게 완성해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최대의 행운이며 자랑인양 《태양맞이 경사로세》의 노래가 경축의 하늘가에 메아리쳤다. 격정에 넘친 관람자들의 열골마다에는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였기에 주체조선의 100년사가 승리와 영광으로 더욱 빛날 수 있었 고 경 애 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어 선군조선의 새로운 100년사는 보다 위황찬란할것이라는 확신이 어려있었다.

갓가지 색깔과 모양의 불보라가 펼쳐지는 하늘가에 《조선의 힘》의 노래가 울려 퍼지며 경축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백두의 넋과 기상안고 세기를 주름잡으며 노도쳐가는 선군조선의 기상어린듯 불꽃기들이 박동되면서도 질서정연하게, 기백이으면서도 담차게 하늘을 깨지르며 솟구쳐올랐다. 갓가지 조화를 부리며 천변만화는 장쾌한 불보라들은 관람자들의 가슴마다에 또 한분의 회색의 백두령장 김정은동지를 우리 당과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고 전진해가는 선군조선의 힘을 당차게 세상에 없다는 철리를 깊이 새겨주었다. 이 세상 가장 위대하고 파사

로운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에 안긴 천만의 심장의 목소리를 담은 노래 《인민의 사랑하는 우리 평도지》의 선율은 군중들로 하여금 인민의 리상과 꿈이 현실로 꽃피는 내 조국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한껏 더해 주었다. 각양각색의 고품관들이 터져 올린 천갈채, 만갈채의 불꽃보라들이 흩어져내려 천하를 천색만색으로 찬란히 물들이었다. 위대한 당의 명도따라 백두산대국의 찬란한 래일을 앞당기려는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가 눈부신 축포되어 앞을 닦아주어 앞으로》의 노래소리와 군중이 터친 환호성이 2월의 하늘가를 진감하였다. 【조선중앙통신】

